

대행 스님

오직 자불 몽둥이 하나 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마음공부를 좀 빨리할 수 없을까요

질문 : 선원에서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환희심이 나고 체험도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미지근해서 변화도 못 느끼고, 제가 공부가 돼 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 그 마음을 공부하는 데 너무 이렇게 서둘지 마세요. 바빠서 서두르면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방황이 되죠. 그러니깐 방황하지 마시고 어떤 거든지, 우리가 똥을 누든지 잠을 자든지 뭐, 밥을 먹든지 누구하고 만나든지, 보든지 듣든지 하여간에 일거수일투족 다, 생각을 안 하든지 하든지, 그것도 다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서 안 하고 하고가 없으니까 그저 여러분들은 한생각 잘해서 굴려라 이거죠. "한생각을 잘해서 굴리면 잘 생각한 대로 그대로다. 그대로 법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어떡하면 마음공부를 빨리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진짜로 내 껍데기를 이렇게 추려서 달아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속 내부를 전체 달아 본다면 근수가 많이 나가겠죠. 그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만 말한다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모습이, 모두가 수레바퀴처럼 돼 있다면 항상 그냥 더하고 덜함도 없이 짧게 구르든 길게 구르든 하여튼 쉬지 않고 굴러가는 것만은 사실이죠.

굴러가는데 말입니다, 그 수레바퀴는 굴러가는데 이 차이가 없이 모습은 자꾸 변하기는 변하되 금세 금세 화해서 돌아가는 거,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거, 그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대로 자기가 공한 도리를 알고, 공한 도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애탄지탄할 게 없이 '함이 없이 24시간 굴렀구나. 함이 없이 굴렀구나. 함이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죽거렸구나. 함이 없이 식구들하고 싸웠구나. 함이 없이 웃었구나. 함이 없이 성냈구나.' 이렇게 그냥 모두가 함이 없다는 것만 알면 죄가 붙을 일도 없고, 유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영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업보성이 거기 붙을 일도 없고. 이것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면 편안하다는 데다 거기 흡수돼서 돌아가죠. 가정살이가 다 흡수돼서 돌아가요. 그냥 거저 편안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얼굴에 기미가 꼬이고 이렇게 얼굴에 그냥 벌써 저거 하면 아주 애탄지탄하고 사시는 게 완연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미 좀 벗기고 살라고 그러면, 어떤 때 보면 기미가 다 벗겨져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니까 말이지, 이거는 이쪽의 우리 생명들이 살고 있는 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간 법계가 다 그렇죠. 우리가 이 잘못돼 돌아가는 거는 왜냐하면 수없이 우리가 살아오는 그 습 때문에, 관습, 습, 착 그것 때문에 어째 볼 수 없이 툭툭 그냥 그냥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못 한다 한다가 나오고 이런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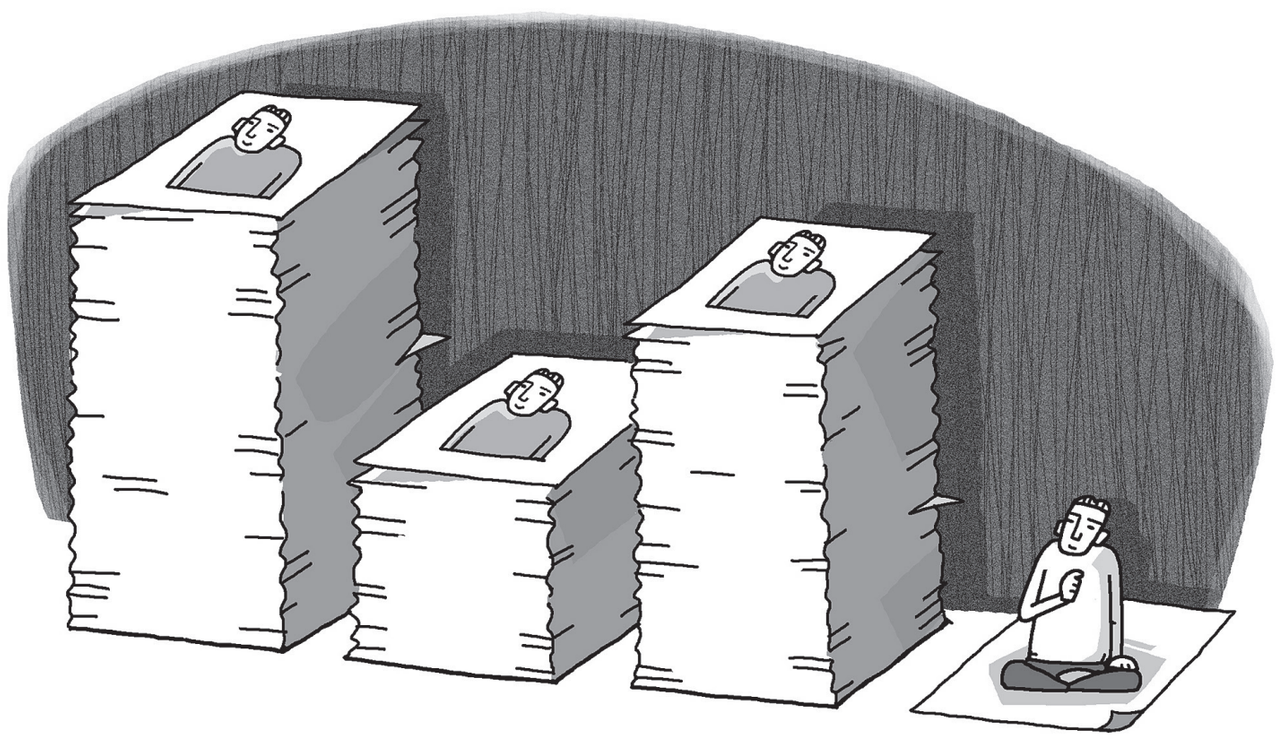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살면서 '감히 이거는 법에도 그렇고 모든 게 이게, 이게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길고 할 수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사람이 살아나가는 덴 이 법이, 이 유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시는 대로 그대로밖에는 안 돼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의 법이다, 허공을 걷는다' 이럴 땐 가고 옴이 없이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그거는 '하지 못 한다, 한다' 도 거기 붙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을 짓는 데에 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인제 수없이 이 공부를 해 오신 분들도 있고 뭐, 30년씩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되지마는 말입니다. 근데 30년이고 10년이고 간에, 단 몇 년이고 간에 이게 우리가 습과 착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수없이 모습을, 짐승의 모습과 미생물의 모습으로부터 수없이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인간까지 올라와서도 인간의 구실을 못 하고 착으로 이렇게 하고, 번뇌로 그냥 가고, 습관으로 가고 이런다면 이 내 모습 하나 벗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거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깐 세세생생의 수레바퀴에 이렇게 말려서 구르다 보니깐 세세생생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죠. 물에서 고길 잡아서 산 채로 그냥 척척 잘라서 회를 쳐서 먹는 거. 닭도 그렇고 모든 게 다요. 그것은 그대로 그렇게 모습을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화된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저건 맛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건 아니야.' 이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렇게 산 거를 턱턱 자르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그냥 입맛이 딱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 마음은 우리 사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빠르고 더딜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지죠.

그 하나하나 생각하시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차원이 주어지죠. 또 행이 주어지고 습이 주어지고 그 습도 함이 없이 주어지죠. 그래서 '습이 없기 때문에 붙을 게 없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리를 알아듣고 평균하게 그냥, 보통 우리네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항상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그러니깐 정신계다 물질계다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그대로 법이다. 생각을 잘하면 안 붙고 모든 게 평등하고, 생각을 못하면 줄줄이 줄줄이 붙는다 이런 거죠.

생각하면 아주 간편하고 그냥 한 발짝 떼 놓는 게 천 리를 한 발짝 떼 놓는 거나 같아요. 이해가 안 가시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잘 간파하셔서 잘, 우리가 생각 한번 하고 그 생각이 음파를 통해서 파장이 돼서 우주간 법계가 다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셔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 배라면 그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은 바로 모습 아닌 선장이다 이런 소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 속에는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진리 속에서 본다면 정말,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사실 수 있다면 다 건지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손을 한데 모으는 것이 십대제자가 있어야 모든 제자들을 건진다.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고 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신 게 바로 부처님이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셔서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나 아닌 나가 알아서 그냥 결정하는 말하고 내 껍데기가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거하곤 천지 차이죠. 즉 말하자면 나 아닌 나가 말하는 것은 에너지 아닌 에너지 창고에서 에너질 꺼내 쓸

☞ 18면으로 계속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